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미 증시, 섀다운 종료,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 속 상승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0일(월) 미 증시는 케빈 해시 위원장의 금주 내 섀다운 종료 가능성 시사 발언, 트럼프 유화적 발언 속 미중 무역갈등 완화된 가운데 아이폰17 판매 호조 속 애플(+3.94%) 사상 최고치 경신에 힘입어 3대 지수는 상승 마감 (다우 +1.12%, S&P500 +1.07%, 나스닥 +1.37%)

섀다운 사태 해소 조짐+미중 무역 갈등 완화+지역은행 부실사태 진정 속 실적 시즌 기대감 이어가며 미 증시는 재차 반등하는 흐름. 이 날 케빈 해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이번주 중으로 20일째로 접어든 섀다운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 심리 개선에 일조. 연방 정부 재개될 경우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증시 모멘텀 생성 가능하다고 판단. 실제로, 과거 섀다운 종료 이후 100일 동안 평균적으로 S&P500은 +6.6%의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도 참고해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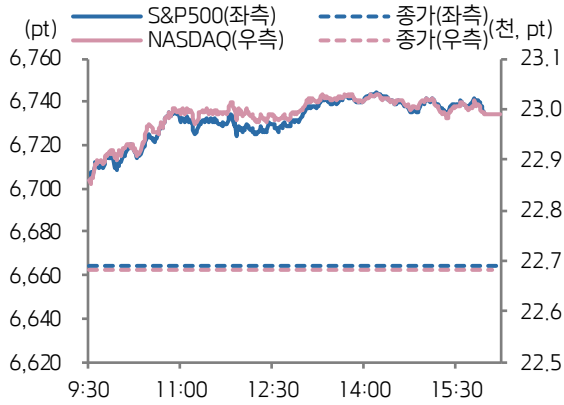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유화적인 발언에 힘입어 미중 무역 갈등 이슈도 점차 완화되는 흐름. 이 날에도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과 한국에서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 특히, 최근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유화적인 스탠스 전환이 특징적인데, 시기적으로 연말 소비시즌을 앞둔 가운데 내년도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관세 전쟁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을 피하는 의도로 보임. 중국도 하반기 경제 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미중 무역 갈등은 경제에 있어 리스크 요인. 이를 감안시, 월 말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상이 유의미하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점차 해소되며 시장은 월 말 예정된 빅테크 실적과 10월 FOMC 일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임. 현재 미 증시의 실적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흐름(1개월 전 대비 EPS 전망치 상향률 S&P500 +1.2%, S&P IT 섹터 +2.4%). 현재 S&P500 12개월 선행 PER은 22.5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부담 높아졌기 때문에 금번 실적 시즌을 거치며 견조한 실적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지에 주목. 여기에 10월 FOMC가 금리 인하 내러티브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무난하게 소화될 경우 연말까지 미 증시는 완만한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지역은행 부실 사태 진정 속 대외 변수 안정화된 가운데 기관을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집중된 결과 양 지수는 상승 마감. 특히, 최근 코스피의 연이은 신고가 경신 속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된 증권 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코스피 +1.76%, 코스닥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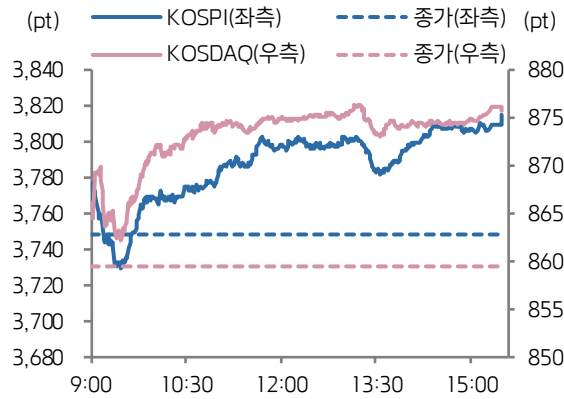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연이은 최고치 경신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 점증에도 대외 불확실성 여건 완화 속 실적 시즌 기대감에 힘입어 전일에 이어 양호한 흐름을 연출할 것으로 전망. 한편, 반도체 일변도의 9월 증시와 달리 최근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더불어 2차전지, 자동차, 전력기기, 증권 업종 등 기존 주도주와 소외주까지 걸쳐 업종 전반의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 금주부터 국내도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진입함에 따라 강세장의 온기가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 단위로 확산될 것으로 판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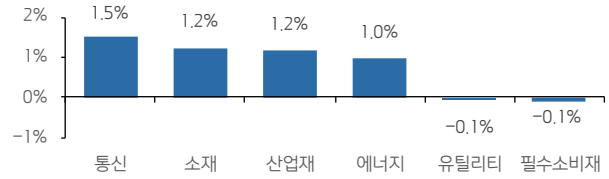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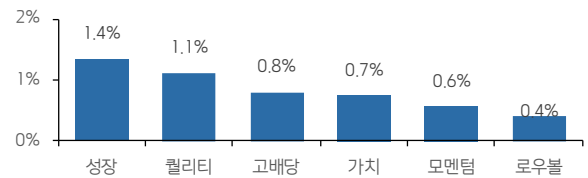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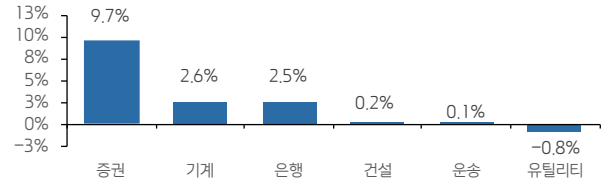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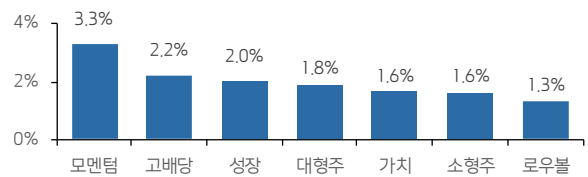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62.24	+3.94%	+5.09%	GM	58.00	-0.65%	+9.79%
마이크로소프트	516.79	+0.63%	+23.28%	일라이릴리	808.96	+0.76%	+5.41%
알파벳	256.55	+1.28%	+35.97%	월마트	107.05	-0.63%	+19.37%
메타	732.17	+2.13%	+25.34%	JP모건	302.36	+1.61%	+28.81%
아마존	216.48	+1.61%	-1.33%	엑손모빌	112.70	+0.41%	+7.67%
테슬라	447.43	+1.85%	+10.79%	세브론	154.48	+0.91%	+10.37%
엔비디아	182.64	-0.32%	+36.03%	제너럴일렉트릭	107.05	-0.6%	+19.4%
브로드컴	349.24	-0.03%	+51.71%	캐터필러	531.18	+1.07%	+48.64%
AMD	240.56	+3.21%	+99.16%	보잉	216.82	+1.82%	+22.5%
마이크론	206.77	+2.17%	+146.39%	넥스트에라	84.77	+0.3%	+21.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3,814.69	+1.76%	+58.98%	USD/KRW	1,420.80	-0.1%	-3.5%	
코스피200	535.28	+1.86%	+68.42%	달러 지수	98.60	+0.17%	-9.11%	
코스닥	875.77	+1.89%	+29.13%	EUR/USD	1.16	-0.11%	+12.44%	
코스닥150	1,479.50	+2.4%	+30.95%	USD/CNH	7.12	-0.04%	-2.91%	
S&P500	6,735.13	+1.07%	+14.51%	USD/JPY	150.75	+0.09%	-4.1%	
NASDAQ	22,990.54	+1.37%	+19.06%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6,706.58	+1.12%	+9.78%	국고채 3년	2.575	+3.5bp	-2bp	
VIX	18.23	-12.27%	+5.07%	국고채 10년	2.892	+2bp	+2.1bp	
러셀2000	2,499.91	+1.95%	+12.1%	미국 국채 2년	3.455	-0.2bp	-78.6bp	
필라. 반도체	6,885.03	+1.58%	+38.26%	미국 국채 10년	3.980	-2.9bp	-58.9bp	
다우 운송	15,814.50	+0.88%	-0.51%	미국 국채 30년	4.569	-3.6bp	-21.2bp	
상해종합	3,863.89	+0.63%	+15.28%	독일 국채 10년	2.577	-0.3bp	+21bp	
항생 H	9,232.67	+2.45%	+26.65%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84,363.37	+0.49%	+7.97%	WTI	57.52	-0.03%	-16.03%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61.01	-0.46%	-18.26%
Eurostoxx50	5,680.93	+1.31%	+16.03%	금	4,359.40	+3.47%	+57.56%	
MSCI 전세계 지수	983.90	-0.05%	+16.95%	은	51.38	+2.55%	+75.72%	
MSCI DM 지수	4,296.41	+0.1%	+15.87%	구리	503.60	+1.34%	+25.07%	
MSCI EM 지수	1,361.60	-1.26%	+26.6%	BDI	2,069.00	+1.12%	+107.52%	
MSCI 한국 ETF	90.43	+2.16%	+77.7%	옥수수	423.25	+0.18%	-4.62%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04.75	+0.2%	-15.66%
비트코인	111,128.56	+2.04%	+18.58%	대두	1,050.00	+1.28%	+1.57%	
이더리움	4,000.15	-0.09%	+19.53%	커피	406.05	+2.16%	+40.3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20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